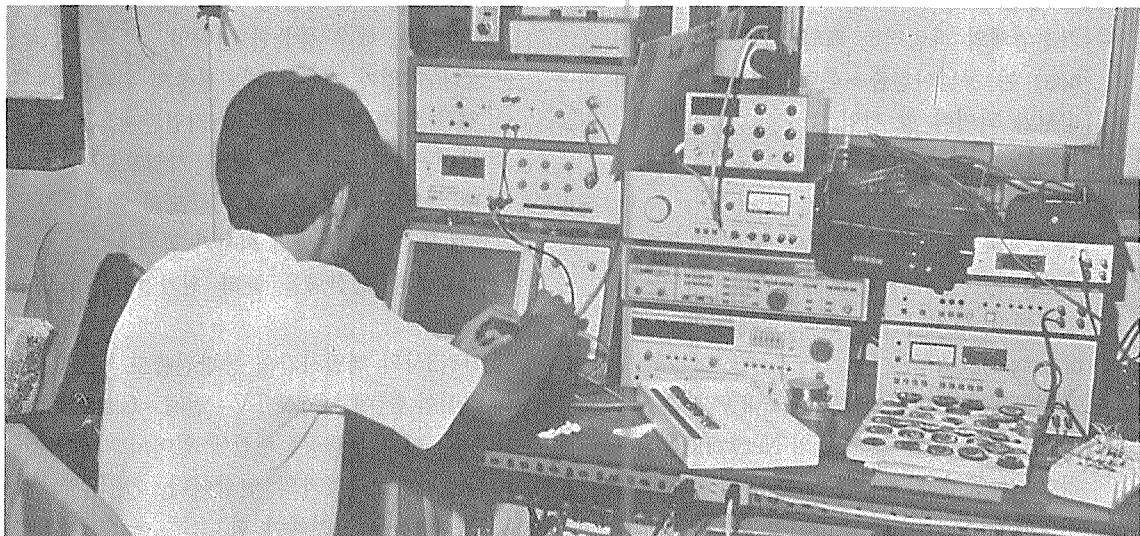


## □ 업체탐방 / 기린전자(주)



기린전자(주) 李起芳 代表理事

설립 당시 자본금 6,000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8억원에 이르고 있는 오디오, 통신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기린전자(주)는 '85년 설립 이후 5년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89년 총매출액 32억을 기록한 비교적 급성장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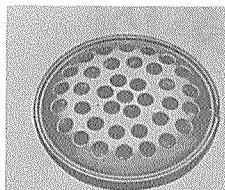
품업체 중의 하나이다.

설립 이래 매년 2배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며 부품업체로는 보기드문 성장의 길을 걸어온 同社는 올해를 성장의 도약기로 삼아 총매출액을 40억내지 4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同社의 주생산 품목은 Micro Speaker, Polyvaricon, Semi-Fixed Resistor, Slide Volume 등으로 국내외 Set 업체에 전량 공급되고 있다. 특히 同社의 생산품목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Micro Speaker는 소형 오디오 제품, 전화기(코드리스 폰 포함), 카폰, 제너럴 스피커 및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말하는 냉장고, 말하는 팩시밀리 등 수요범위가 광범위한 제품으로 국내 및 해외 바이어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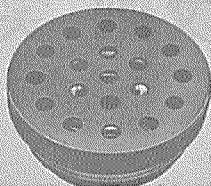
Polyvaricon은 일본의 중견기업인 T.W.D와 기술제휴로 국내외적인 시장경쟁력을 감안하여 극소형 라디오에 필요한 특수 모델을 개발하여 월 10만 개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또 한 Semi-Fixed Resistor는 '88년 일본의 중견기업인 MITAKE CO.와 기술제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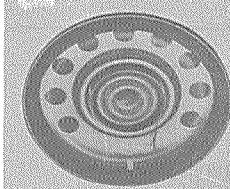
**VP-23**

- Type: Dynamic
- Impedance: 8, 16, 32 ( $\Omega$ ) $\pm 15\%$
- Rated Input: 20mW
- Freq. Response: 10 — 17KHz
- Out Put S.P.L: 82 $\pm 2$ dB (at 1KHz)
- Magnet: Samarium Cobalt
- Frame: Metal
- Flux Density: 5,500 Gau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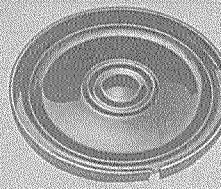
**28-8F**

- Type: Dynamic
- Impedance: 8, 16, 32 ( $\Omega$ ) $\pm 15\%$
- Rated Input: 0.1W
- Freq. Response: 10 — 3.5KHz
- Out Put S.P.L: 81 $\pm 2$ dB (at 1KHz)
- Magnet: Ferrite
- Frame: Plastic
- Flux Density: 5,500 Gauss



**30-32A-01**

- Type: Dynamic
- Impedance: 8, 16, 32 ( $\Omega$ ) $\pm 15\%$
- Rated Input: 0.1W
- Freq. Response: 10 — 15KHz
- Out Put S.P.L: 82 $\pm 2$ dB (at 1KHz)
- Magnet: Samarium Cobalt
- Frame: Metal
- Flux Density: 5,500 Gauss



**28-8A**

- Type: Dynamic
- Impedance: 7.8 ( $\Omega$ ) $\pm 15\%$
- Rated Input: 0.1W
- Freq. Response: 10 — 15KHz
- Out Put S.P.L: 82 $\pm 2$ dB (at 1KHz)
- Magnet: Samarium Cobalt
- Frame: Metal
- Flux Density: 5,500 Gauss

자동화된 설비를 갖추고 TV 및 카메라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同社는 제품의 종류별 생산으로 인해 분공장 체제를 갖추고 철저한 외주관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필리핀, 태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다.

창립후 '8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조성업체로 선정되었고, '87년에는 100만弗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그래 들어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전자업계가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李起芳 代表理事는 “해외에서는 부품에 대하여 품질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는데 무엇보다도 기능인력 및 기술인력 확보가 힘이듭니다. 또한 인력을 확

보했어도 그 인력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인력확보와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업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계속적인 이익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여 사회, 국가에 기여한다는 경영방침으로 깊은 기간동안 기린전자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전사원의 힘이 근본이었다고 李起芳 代表理事는 말하고 있다.

사원 모두가 올해의 후반기를 겨냥,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는 기린전자는 올해의 목표를 달성, 국내외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빌듬을 할 사명감으로 불타 있었다.